

대-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국제 비교 및 시사점*

—
노민선 (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)

1. 분석개요

■ 분석자료

- (한국) 「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」(고용노동부)
- (미국) 「Statistics of US Business」(상무부)
- (일본) 「민간급여실태 통계조사」(국세청)
- (프랑스) 「Declaration Annuelle de Donnees Sociales」(INSEE)

■ 환율

- 국가별 비교를 위해 OECD에서 제공하는 PPP(Purchasing Power Parity)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, 달러(\$)로 변환하여 적용함(2018.12.5. 기준).

2. 분석결과

1) 전체

- 우리나라 기업의 종업원 1인당 평균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3.0%('07~'12) → 2.8%('12~'17)로 0.2%p 감소함.
 - 5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5년 단위 연평균 증가율이 0.2%p 증가함(3.5%→3.7%).

* 본 연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『대-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』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.

〈기업 규모별 평균임금 변화 추이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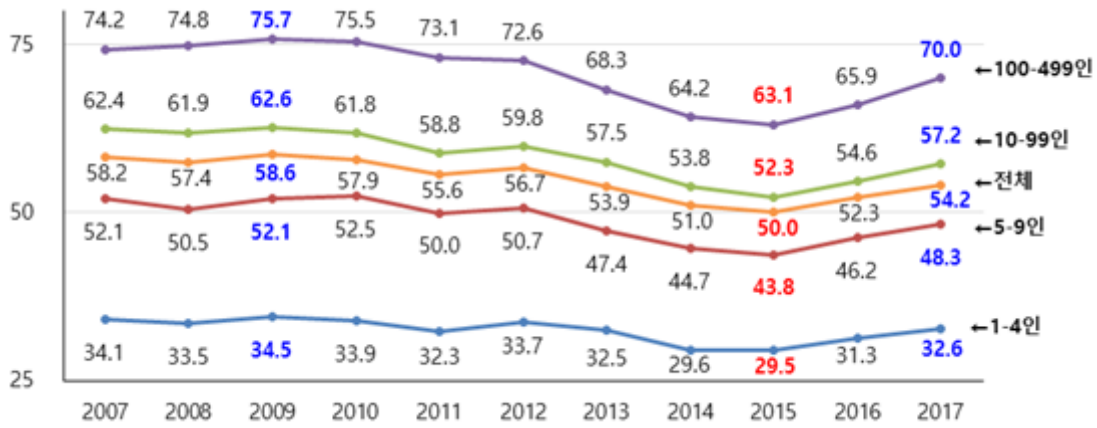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원, %)

구 분	2007	2012	2017	CAGR ('07~'12)	CAGR ('12~'17)	CAGR ('07~'17)
1~4인	1,276	1,505	1,745	3.4	3.0	3.2
5~9인	1,951	2,261	2,583	3.0	2.7	2.8
10~99인	2,339	2,666	3,061	2.7	2.8	2.7
100~499인	2,781	3,237	3,742	3.1	2.9	3.0
500인 이상	3,747	4,460	5,347	3.5	3.7	3.6
전 체	2,179	2,527	2,896	3.0	2.8	2.9

■ 최근 10년간 대·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심화

-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 : 58.2%('07) → 54.2%('17)
- 2015년을 기점으로 격차가 완화되고 있지만, 2009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함.

〈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 변화 추이〉



■ 우리나라 기업의 종업원 1인당 평균임금은 2017년 기준 월 3,302달러(PPP 기준)로 미국의 78.6%, 일본의 91.3%, 프랑스의 86.6% 수준임.

- 5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임금은 미국 대비 28.7%, 일본 대비 48.6% 높음.

〈기업 규모별 평균임금 국제 비교(주요국 대비)〉

(단위 : PPP 기준 US \$, %)

구 분	한국(2017)	미국(2015)	일본(2017)	프랑스(2015)	미국 대비	일본 대비	프랑스 대비
1~4인	1,990	3,731	2,697	3,083	(53.3)	(73.8)	(64.5)
5~9인	2,945	3,071	3,166	3,321	(95.9)	(93.0)	(88.7)
10~99인	3,490	3,450	3,438	3,503	(101.2)	(101.5)	(99.6)
100~499인	4,267	4,029	3,605	4,164	(105.9)	(118.4)	(102.5)
500인 이상	6,097	4,736	4,104	5,238	(128.7)	(148.6)	(116.4)
전 체	3,302	4,200	3,616	3,811	(78.6)	(91.3)	(86.6)

-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은 54.2%로 미국(88.7%), 일본(88.1%), 프랑스(72.8%)보다 낮음.
 - 1~4인 기업은 32.6%, 5~9인 기업은 48.3% 수준에 불과함.

(기업 규모별 평균임금 국제 비교(500인 이상 대비))

(단위 : PPP 기준 US \$, %)

구분	한국(2017)		미국(2015)		일본(2017)		프랑스(2015)	
	평균임금	비중	평균임금	비중	평균임금	비중	평균임금	비중
1~4인	1,990	32.6	3,731	78.8	2,697	65.7	3,083	58.8
5~9인	2,945	48.3	3,071	64.8	3,166	77.1	3,321	63.4
10~99인	3,490	57.2	3,450	72.8	3,438	83.8	3,625	69.2
100~499인	4,267	70.0	4,029	85.1	3,605	87.8	4,164	79.5
500인 이상	6,097	100.0	4,736	100.0	4,104	100.0	5,238	100.0
전체	3,302	54.2	4,200	88.7	3,616	88.1	3,811	72.8

- 종업원 1인당 평균임금은 GDP 대비 103.3% 수준임.
 - 미국(89.3%)과 일본(100.2%)보다 높고, 프랑스(112.9%)보다 낮게 나타남.
 - 500인 이상 대기업(190.8%)은 미국(100.7%), 일본(113.7%), 프랑스(155.2%)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임.

(기업 규모별 평균임금 국제 비교(1인당 GDP 대비))

(단위 : PPP 기준 US \$, %)

구분	한국(2017)		미국(2015)		일본(2017)		프랑스(2015)	
	평균임금	비중	평균임금	비중	평균임금	비중	평균임금	비중
1~4인	1,990	62.3	3,731	79.4	2,697	74.7	3,083	91.4
5~9인	2,945	92.2	3,071	65.3	3,166	87.7	3,321	98.4
10~99인	3,490	109.2	3,450	73.4	3,438	95.3	3,503	103.8
100~499인	4,267	133.5	4,029	85.7	3,605	99.9	4,164	123.4
500인 이상	6,097	190.8	4,736	100.7	4,104	113.7	5,238	155.2
전체	3,302	103.3	4,200	89.3	3,616	100.2	3,811	112.9

2) 업종별

- 제조업의 1인당 평균임금은 2017년 기준 월 3,422천 원으로 서비스업(2,721천 원) 대비 25.8% 높은 수준(10인 미만, 500인 이상)임.
 -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는 5인 미만 기업을 제외하고 제조업에서 크게 나타남.

(기업 규모별·업종별 평균임금(2017년))

(단위 : 천 원, %)

구분	제조업		서비스업		서비스업 대비(A/B)
	평균임금(A)	500인 이상 대비	평균임금(B)	500인 이상 대비	
1~4인	2,060	35.1	1,676	34.0	122.9
5~9인	2,692	45.9	2,559	51.9	105.2
10~99인	3,029	51.6	3,034	61.5	99.8
100~499인	3,743	63.8	3,691	74.9	101.4
500인 이상	5,868	100.0	4,929	100.0	119.1
전체	3,422	58.3	2,721	55.2	125.8

- 제조업의 1인당 평균임금은 월 3,912달러(PPP 기준)로 미국(4,716달러)의 83.0% 수준임.
 - (미국 대비) 100인 미만 기업은 낮으며, 500인 이상 대기업은 26.7% 높음.
 -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(58.3%)은 미국(89.1%) 대비 30.8%p 낮음.

〈한국과 미국의 기업 규모별 평균임금(제조업)〉

(단위 : PPP 기준 US \$, %)

구분	한국(2017)		미국(2015)		미국 대비 (A/B)
	평균임금 (A)	500인 이상 대비	평균임금 (B)	500인 이상 대비	
1~4인	2,355	35.1	3,873	73.1	60.8
5~9인	3,078	45.9	3,164	59.8	97.3
10~99인	3,463	51.6	3,752	70.8	92.3
100~499인	4,280	63.8	4,255	80.3	100.6
500인 이상	6,709	100.0	5,296	100.0	126.7
전체	3,912	58.3	4,716	89.1	83.0

- 서비스업의 1인당 평균임금은 월 3,111달러(PPP 기준)로 미국(4,063달러)의 76.6% 수준임.
 - (미국 대비) 10인 이상 기업은 낮으며, 500인 이상 대기업은 22.8% 높음.
 -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(55.2%)은 미국(88.6%) 대비 33.4%p 낮음.

〈한국과 미국의 기업 규모별 평균임금(서비스업)〉

(단위 : PPP 기준 US \$, %)

구분	한국(2017)		미국(2015)		미국 대비 (A/B)
	평균임금 (A)	500인 이상 대비	평균임금 (B)	500인 이상 대비	
1~4인	1,916	34.0	3,725	81.2	51.4
5~9인	2,925	51.9	2,991	65.2	97.8
10~99인	3,468	61.5	3,255	71.0	106.5
100~499인	4,221	74.9	3,858	84.1	109.4
500인 이상	5,635	100.0	4,587	100.0	122.8
전체	3,111	55.2	4,063	88.6	76.6

3) 연령별

- 29세 이하 청년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은 2017년 기준 월 1,979천 원으로 30~64세 근로자(3,173천 원)의 62.4% 수준임.
 - 청년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은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34.8~75.3% 수준에 불과함.
 -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·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심화됨.

〈기업 규모별·연령별 평균임금(2017년)〉

(단위 : 천 원, %)

구분	29세 이하(청년)		30~64세(일반)		일반 대비 (A/B)
	평균임금 (A)	500인 이상 대비	평균임금 (B)	500인 이상 대비	
1~4인	1,188	34.8	1,921	32.9	61.8
5~9인	1,930	56.6	2,745	47.0	70.3
10~99인	2,141	62.7	3,306	56.6	64.8
100~499인	2,571	75.3	4,053	69.3	63.4
500인 이상	3,413	100.0	5,845	100.0	58.4
전체	1,979	58.0	3,173	54.3	62.4

- 29세 이하 청년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은 월 2,262달러(PPP 기준)로 일본(2,664달러)의 84.9% 수준임.
 - 5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임금은 일본 대비 38.3% 높으며, 1~4인 기업의 평균임금은 일본 대비 63.5% 수준에 불과함.
 -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(58.0%)은 일본(94.4%) 대비 36.4%p 낮음.

〈한국과 일본의 기업 규모별 평균임금(청년, 29세 이하)〉

(단위 : PPP 기준 US \$, %)

구분	한국(2017)		일본(2017)		일본 대비 (A/B)
	평균임금 (A)	500인 이상 대비	평균임금 (B)	500인 이상 대비	
1~4인	1,358	34.8	2,140	75.9	63.5
5~9인	2,207	56.6	2,197	77.9	100.5
10~99인	2,448	62.7	2,466	87.4	99.3
100~499인	2,940	75.3	2,751	97.5	106.9
500인 이상	3,902	100.0	2,821	100.0	138.3
전체	2,262	58.0	2,664	94.4	84.9

- 30~64세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은 월 3,627달러(PPP 기준)로 일본(3,918달러)의 92.6% 수준임.
 - 5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임금은 일본 대비 48.8% 높으며, 10인 미만 기업은 일본보다 낮게 나타남.
 -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(54.3%)은 일본(87.3%) 대비 33.0%p 낮음.

〈한국과 일본의 기업 규모별 평균임금(일반, 30~64세)〉

(단위 : PPP 기준 US \$, %)

구분	한국(2017)		일본(2017)		일본 대비 (A/B)
	평균임금 (A)	500인 이상 대비	평균임금 (B)	500인 이상 대비	
1~4인	2,196	32.9	2,965	66.0	74.1
5~9인	3,139	47.0	3,397	75.7	92.4
10~99인	3,780	56.6	3,665	81.6	103.1
100~499인	4,634	69.3	3,855	85.9	120.2
500인 이상	6,683	100.0	4,490	100.0	148.8
전체	3,627	54.3	3,918	87.3	92.6

3. 정책적 시사점

- 대-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과도한 임금과 영세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수준에 기인
 -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은 GDP 대비 190.8% 수준이며, 주요국 대비 16.4~48.6% 높게 나타남.
 - 10인 미만 소상공인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은 주요국 대비 낮으며,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(1~4인: 32.6%, 5~9인: 48.3%).
 - 연령이 증가하면서 대-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가 커짐.
 - ⇒ 우수 인적자원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인식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.
- 대-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(조직 관점)과 성과공유제 활성화(개인 관점)의 Two-Track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.

〈(가칭)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〉

- 생산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, 국가 차원의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 수립
-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수단별 세부 지원내용 제시
- 조세지원, 국가연구개발사업, 인력양성, 규제완화 등
- 기존 법령에 명시된 생산성 관련 규정과의 연계 강화
 - ⇒ 2022년까지 중소기업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을 목표로 관련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
 - ※ 일본의 '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'(18.6)
 - 기술 관련 규제를 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창구 도입, 혁신적 사업활동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와 투자 촉진,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등(일부 조치 3년 한도)

〈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성화〉

- 중소기업 성과공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
- 중소기업 사업주 vs. 근로자 / 대기업 vs.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
- 중소기업 성과공유 홍보 및 컨설팅 강화
-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 및 복지서비스 확충
 - ⇒ '사람 중심의 기업가 정신' 함양을 통한 기업 문화 혁신